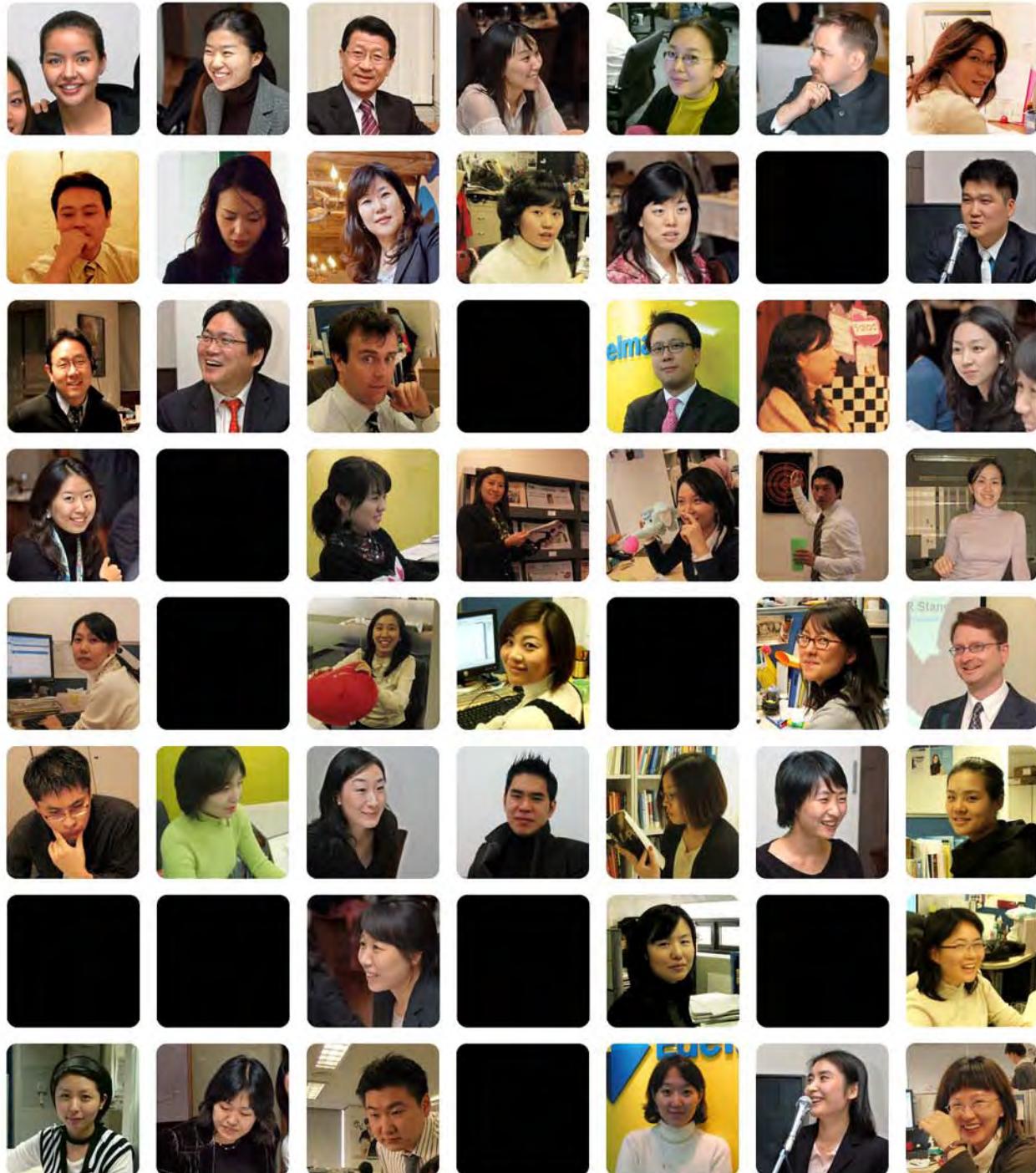


PR Wanna Be



INDEX

- 003 PR 회사 입성하기 & 일하기 A-Z
- 006 생생 리얼 토크! PR 회사의 8가지 진실
- 013 PR 다이어리: PR 컨설턴트 24시간 밀착 취재
- 015 Work & Life: “PR 프로페셔널로 산다는 것”
- 018 PR Wanna Be 를 위한 어드바이스

PR 회사 입성하기 & 일하기 A-Z

PR회사의 프로페셔널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입사했는지, 어떻게 커리어를 키워가는지, PR회사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등에 관해
에델만 1~2년차 사원 3명과 3~5년차 대리/과장급 3명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활을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열정”으로 승부했습니다

❶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오셨는데, PR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는 광고 프러덕션의 PD로 2년 이상 일하다가, 평생의 업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울까, 보람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다 PR 관련 강좌를 듣게 됐고, 그때 PR을 알게 됐습니다. 광고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카테고리로 뭉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울 것이 많이 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❷ 입사 준비 및 채용 과정은?

PR 강좌 중 에델만 김호 사장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 강사님이셨던 지금 사장님께 잘 어필되어 면접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기회였지만 당시 제 스스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던 시기에서 평소 준비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 꼭 요약해서 노트하는 습관, 김명깊이 읽은 책 내용을 통해 나를 25개 문장으로 정리했던 것 등입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은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5년여 간 전역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어서, 예상 질문과 답을 열 장이 넘도록 노트에 글로 써보고 당일 아침까지 연습했습니다. 다행히 면접 때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잘 전달됐고 ‘Passion is a miracle, and I have passion’이라는 저의 키 메시지 덕분에 면접 분위기가 좋아졌었습니다.

❸ PR회사의 ‘축망’ 받는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것 3가지?

근성

사원 시절에는 질적 깊이가 있는 업무보다는 선배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양적으로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근도 찾고, ‘멋지게 기획하고, 멋지게 프리젠테이션하는 홍보우먼’이라는 일종의 환상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는데, 워든지 꼭대기에 오르려면 첫 번째 계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순발력

처음에는 선배들의 일을 많이 돋기 때문에, 싹싹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인턴이나 말단 사원 시절에는 ‘그 친구 참 일을 빠르게 한다’, ‘피드백이 빨라서 좋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청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PR회사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치 있는 순발력’은 직급이 올라가기 되어도 필요한 자질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또는 열정

그 어떤 신입사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배우려는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처음 일하다보면 PR회사에서도 과중한 업무, 선배와의 관계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자 및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경험이 없으면 처음에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발전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탱해줄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PR 회사, PR 전문가를 위한 등용문

❶ PR회사는 어떤 곳?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PR회사는 PR 실무를 제대로 악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진정한 PR Professional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PR전문가를 꿈꾼다면 PR회사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PR 회사는 고객사를 위한 PR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만큼,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고객사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❷ 일반적인 기업 홍보실에 비해 PR회사가 가진 장점은?

PR회사가 가진 장점은, PR 자체에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종류의 PR 업무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PR’ 업이 무엇인지 실제 업무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한발 앞서 기획력, 제안 능력 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PR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능력과 마인드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❸ PR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이것 한 가지’ 만을 강조한다면?

PR회사에서 일한다면 고객사, 미디어, 협력업체 등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들과 엮인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함과 적극적인 태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PRO이라는 입은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직업으로,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와 트렌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유리하지요.

❹ 만약 학교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PR의 위상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PR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게는 마케팅과 파이낸스가 그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R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PR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지식 이외에도, 고객사가 속한 산업 분야 및 업계 동향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 업무에 있어서도 업계 관련 서적 및 연구 보고서를 자주 읽고, 관련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iran / Account Executive 사원



Youngzoo / Account Supervisor 과장

PR 회사 입성하기 & 일하기 A-Z

촉망 받는 사원이 되려면, “선배에게 믿을 만한 사원으로 찍여라!”

❶ PR회사 입사 준비 과정?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던 중 PRO이론 과목을 이수했는데 이때 PR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업으로서 고민하게 됐고, 구체적인 실무 활동이 어떤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PR 실무자들을 양성하는 시설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들으며 다양한 PR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덕분에 당시 인턴사원 모집 중이었던 에델만에 추천되어 인터뷰를 거쳐 입사하게 됐습니다.

❷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저는 비디오 게임기 및 Food & Nutrition 분야의 제품 및 기업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때때로 위기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인 비디오 게임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속한 만큼, 미디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어 다이나믹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❸ PR회사의 ‘촉망’ 받는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것 3가지?

머릿 속에 든 PR 이론/실무서 한 권

PR회사의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개별 업무에 험울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며, 수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뼈대를 제공해줍니다.

책임감

덜 중요한 일을 잘하면, 더 중요한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PR 업무 속에서 믿을 만한 사원과 함께 일하는 것은 선배들의 로망! 이는 신입사원의 책임감 있는 일처리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는 본인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적극적인 태도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마친 신입사원의 반응은 두 가지죠. ‘끝냈다!’ 혹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입니다. 후자의 질문을 하기 위해 선배들에게 당찬 걸음을 옮기는 후배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얘기하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❹ PR회사에서 일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은?

하루 근무하는 8시간 중 6시간은 자판을 두드립니다. 따라서 이메일, 보도자료, 리포트, 기획서 등을 위한 글쓰기 능력과 더불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2가지는, 바로 시간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PR 업무들은 매우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만큼,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비틀수록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최대한 노력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를 털어내고 이겨내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름의 관리 방법을 터득해서, 스트레스로 소모하는 에너지를 아끼면서 일도 즐겁게 하고 삶에 좀 더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입사 노하우요? PR사례 분석 및 PR회사 웹사이트 독파 후 수시지원했죠!

❶ PR을 알게 된 계기?

저는 대학 시절 배낭여행 비용을 마련하고자 학원을 창업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이 사업이 날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때의 성공 요인이 바로 PRO였고 이를 통해 PR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며 학원이라는 조직이 가진 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❷ PR회사 준비 및 입사 과정?

저는 우선 PRO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련 서적과 수집한 자료를 통해 PR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읽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저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며 실험실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PR과 광고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배경지식이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PR을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웹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에델만을 알게 됐으며, 수시채용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인터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❸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향후 커리어 계획?

저는 디지털 제작회사의 기업 홍보를 담당하면서, 여성 관리를 위한 미디어 활동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국계 경과류 협회의 홍보를 담당하며 아문드의 영양 정보를 알리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홍보 경험을 쌓아가며 커리어를 무력무력 빌전시켜, 10년 후에는 헬스케어 PR 분야의 큰 순이 되고자 합니다.

❹ PR을 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PR회사를 추천하는 이유 3가지는?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집에서는 ‘엄마, 배고파’ 만으로도 법을 먹겠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R환경에서는 다양한 조직과 공중들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PR회사에서는 고객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까지, 다양한 공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의적절하고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및 실행

PR회사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고객과 함께 다양한 PR 활동을 하는 만큼, 실현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동료들의 반짝반짝 찬란한 아이디어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창의적인 생각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실무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PR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정신

‘정말 당신이 프로라면’이라는 기정 하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PR회사는 진정한 PR의 프로들이 모인 곳이며, 그들은 언제나 프로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작은 섬세한 것들부터 거칠 것 없어 보이는 담대함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Haena / Account Executive 사원



Darai / Assistant Account Executive 사원

PR 회사 입성하기 & 일하기 A-Z

지원할 회사의 핵심 PR 분야를 파악할 것



Jerry / Account Supervisor 과장

① PR회사를 지원하기 전에 꼭 알아보아야 할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PR 회사가 바라보는 PR의 방향, 핵심 PR 분야, 주요 고객사, 인력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이 그 회사의 일원으로 합류한다면 어느 분야의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과 자신의 성향이 잘 어울리는지 파악하고, 기존 구성원들과 자신이 잘 융화될 수 있는지를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라고 볼니다.

② PR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PR회사의 AE는 다양한 고객사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PR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 이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한 자신과 잘 맞는 산업 분야 및 PR 영역을 찾고, 그 방면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③ PR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PR인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실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자질을 덧붙인다면, 진정한 PR Professional에 다가서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i.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열린 마음
- ii.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논리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획득 능력,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득 능력
- iii.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

강도 높은 업무와 스피드를 즐길 줄 알아야



Jieun / Senior Account Executive 대리

① PR회사 입사 전 이것만은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PR회사에 들어오는 것은 입사 후 진정한 PR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들어와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훨씬 고되기 때문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PR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을 키워가며 전문적인 경험을 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겉으로 보이고 매체를 통해 알려진 PR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지원했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PR회사의 AE들은 물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물 속에서는 쉼 없이 밤을 움직이는 백조와 같습니다. 따라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향후 진로에 많은 선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② PR회사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성을 빨리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PR 전략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 제약, IT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해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해볼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③ PR회사의 PR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말이나 글로 고객사, 미디어,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타겟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R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고 나의 뜻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의 속도를 맞춘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렇습니다. PR회사의 전문가라면 속도를 즐길 줄 알고 속도를 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요즘은 단순히 'PR 전문가'가 아니라 '해외 PR 전문가', '헬스케어 PR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와 같이 특정 산업 분야 또는 세분화된 PR 영역으로 더 전문화, 특화되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연차가 높아질수록 특정 산업 분야나 PR 프랙티스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생 리얼 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7인의 PR 전문가가 말하는 Q&A 리얼토크!

PR인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을 만나 PR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9가지 질문에 대해 PR회사 3년~8년차 선배들이 생생한 답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진실

Q PR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나요?



Juny

보통의 PR회사들은 수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방법은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한국PR협회 웹사이트를 주로 참고하는 것, 그리고 둘째, PR회사에 다니고 있는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신입 채용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Elizabeth

우선 주위의 지인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의 PR회사들이 주로 수시 채용을 하는 것을 감안해 해당 회사에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요.



Rachel

PR회사는 수시 채용 위주여서, 항상 채용 안테나를 쭉끗 세우고 PR회사 웹사이트에 자주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네요. 혹, PR 관련 아카데미나 스쿨에 다니면서 업계에 재직 중인 선배를 알아두는 것도 추천!!



Sein

저는 PR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과 만나서, 졸업 전에 입사하기 위한 방법이나 PR회사에 다니게 되면 담당하는 실무 등에 대해 알아봤었지요.



Eugene

저는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했는데요, 주변 동료들을 보니 신입이라도 PR에 관심이 많은 모임 등에 속하거나 아카데미를 다닌다면 채용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고, 추천을 통해 입사할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다고 하더군요.



Jenny

수시 지원이 가능하므로, PR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자료를 보내면 됩니다. 보통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입사 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입의 경우에는 인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죠.



Ihn

신입의 경우는 대부분의 PR회사가 수시 모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되고요. 경력의 경우는 주로 지인을 통한 소개가 많습니다.

수시 채용이 보편적!
기회는 부지런한 자의 것!



쌩쌩 리얼 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두번째
진실

Q PR인으로서 꼭 필요한 능력이나 성격은 무엇인가요?

말하기뿐 아니라 듣고 읽고 쓰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必!



Juny

PR은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는 일반인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해요. 그리고 PR 실무자들은 언론사 기자, 고객사 담당자, 기업의 임원,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기업의 위기 및 이슈가 발생하는 등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Elizab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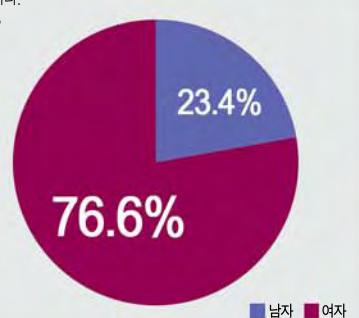
건강한 체력, 스트레스를 잘 이길 수 있는 정신력,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이지요. 성격은 밝고 적극적이고 뻔뻔하고, 또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하고 맨땅에 헤딩할 수 있으면 오케이!

Mini poll @ Edelman Korea

통계로 본 PR회사!
PR회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 위해 미니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2006년 12월 에델만코리아 PR컨설턴트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모든 PR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임직원 성 비율

“우 > ♂”



Rachel

뻔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언어 표현 능력과 분석력이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또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도 PR인으로서 꼭 필요한 능력의 한 부분이고요.



Sein

PR인에게는 2가지가 필수!! 첫째는 한국어와 영어 등 탁월한 언어능력,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친화력이 그것입니다.



Eugene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또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야기거리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성격도 필요해요.



Jenny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PR회사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기본으로,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한 설득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Ihn

사람을 많이 접하고 정신적+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으니 무엇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초연인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넉살과 재치가 있으면 더 좋고요. ^~

생생 리얼 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세번째
진실

Q 졸업반 학생입니다. PR 회사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나 경력이 유리한가요?
또 영어는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Juny

커뮤니케이션 관련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거나, 다른 PR회사 혹은 언론사에서 일해본 경험은 입사시 긍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영어 실력은, 국내 기업과 주로 일하는 회사라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외국계 기업 고객이 많고 영어로 업무가 진행되는 외국계 PR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영어가 원만하지 않으면 입사하더라도 실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신입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에요.



Rachel

특별하게 요구되는 활동이나 경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본인이 PR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 및 PR이라는 직업에 다가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활동? 학생 때 인턴쉽 경험이 있으면 유리!

영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점수보다는 실질적 구사 능력이 더 중요!



Elizab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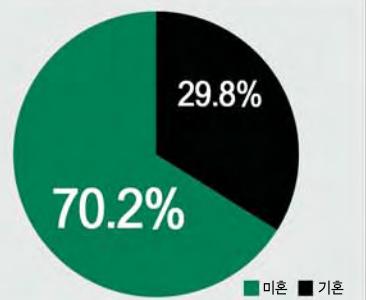
물론 PR을 공부한 이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PR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론보다는 실무에 강한 게 중요하거든요.
영어 역시 점수보다는 실제적인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이 더 중요하고요.

Mini poll @ Edelman Korea

통계로 본 PR회사

결혼비율

“세 명 중 한명은 기혼”



Sein

PR회사 취업에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방학을 이용해 PR회사 또는 기업체의 PR, 마케팅 팀 등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것”. 그리고 학보사 등의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글쓰기를 익힐 것도 권유하고 싶네요. 저는 한국언론재단에서 나오는 월간지 ‘신문과 방송’의 대학생 통신원을 하면서 신방과에서 배운 기사작성법을 실무에 활용하는 경험을 쌓았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Eugene

PR 회사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 곳을 여행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고, 회사 인턴쉽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PR을 하는 경우는, 보도자료 작성 및 외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고요.



Jenny

PR회사나 언론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PR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양한 산업에 대한 경험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는 토익 점수보다는 실제적인 생활영어와 비즈니스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Ihn

영어시험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다국적 기업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니 업무상 필요한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이 뒷받침 되는 것이 원활한 업무진행에 도움이 되지요. 본인에게도 그게 편할 걸요?

생생 리얼 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네번째
진실

Q PR 회사의 연봉이나 복지는 어떠한가요?



Juny

일반적으로 PR회사는 신입의 경우 연봉은 대기업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나 대기업보다 연봉 인상의 폭이나 승진의 기회가 보다 높고 넓기 때문에, 실력이 쌓인다면 좋은 조건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또한 지적 성장을 위한 내외부 교육, 해외 워크샵 참여 등 인센티브 요인은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Elizabeth

일반 기업을 다녀본 적이 없어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만큼 일의 양은 엄청나단 것을 감안하시고요. 저는 두 곳 이상의 PR회사에서 일을 해 봤는데 복지 수준은 PR회사마다 달라요. 회사 차원에서 배려가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지요.



Rachel

저는 기업체 홍보실과 PR회사, 이렇게 두 군데에서 모두 근무를 해봤는데요, PR회사의 초봉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경력과 본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일반 기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업무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기 있는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 주부 입장에서 서로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점에서도 추천하고요.

실력과 경험, 그리고 열정으로 무장했다면,
비례해서 올라가는 몸값!



생생리얼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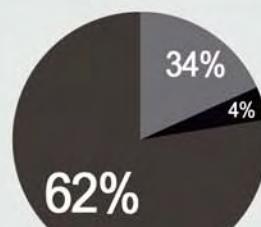
PR Wanna Be

Mini poll @ Edelman Korea

통계로 본 PR회사

연령대

“ 10명 중 6명은 20대
= 젊고 역동적인 조직 ”



■ 21-30 세 ■ 31-40 세 ■ 41-50 세



Sein

저는 육아를 위한 회사의 배려로 주 32시간, 즉 4일만 일하는 특별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등 여성들이 결혼 후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Eugene

다른 회사들이 그럴 듯 연봉은 PR회사마다 달라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 대비 연봉을 생각한다면 많은 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괄적인 시스템보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인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



Jenny

대기업 수준과 비교하면 초봉은 적은 편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봉급을 원한다면, PR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는다면 그만큼 '능력의 연봉 반영' 여지가 크다고 봐요.

PR Wanna Be

생생리얼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PR Wanna Be

쌩쌩 리얼 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다섯번째
진실

Q PR회사에서는 어떤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나요?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Juny

PR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PR 업무를 빠르게 전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커리어 상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나아가 비해 큰 책임감과 오너쉽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는 습관과 가치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보통 3~5년의 연차에 기업체 PR 담당자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PR회사에서는 매우 다이나믹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일하려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필요하지요.



Elizabeth

저는 PR회사에서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PRO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봐요. PR업계에 평생을 몸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 방향이라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Rachel

저는 PRO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매력을 발하는 직업이 PRO이거든요.



S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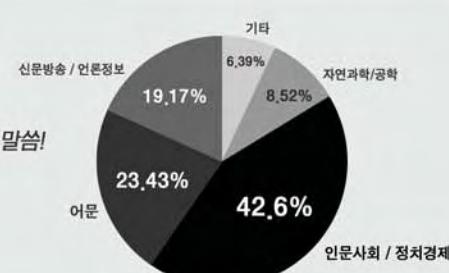
PR회사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도 있고, 타 분야로 진출할 경우, PR Professional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해요. 이를테면, 다양한 기업의 PR/마케팅/프로모션팀, 이미지 메이커, 리서치 회사, 비즈니스 컨설팅 PR회사 등등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죠.

Mini poll @ Edelman Korea

통계로 본 PR회사

전공분야

“PR 전공한 사람만 있나구요? 천만의 말씀!
성의가도 스키선수도 있어..
다양한 경험은 PR의 힘!”



욕심과 열정만큼
원하는대로 뻗어나간다!



저 떨리까지~



Eugene

PR회사에서 여러 산업군의 PR 활동을 경험한 다음,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의 홍보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Jenny

커리어의 개발과 수명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본인이 PR회사에서 장기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면 PR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되고, 몇 년 일한 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마케팅 등 다양한 커리어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쌩쌩 리얼 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여섯번째
진실

Q PR은 전문직인가요? PR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Juny

당연한 질문! 전문직이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아근하면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성장을 직접 느낄 수 있고, 욕심을 가지는 만큼 성장도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또한 같은 업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과 함께 팀으로서 일하고, 팀으로서 성공을 지속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Elizabeth

내가 한 활동이 고객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때 가장 즐거워요. 이러한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전문직이죠.



Rachel

정보와 관련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PR인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러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동일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즐거운 점 아닐까요?



Sein

자신이 배우려는 마음가짐과 자세만 돼있다면 무궁무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PR회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전문직이죠. 그래서 가장 즐거운 건, 스마트한 사람들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일하는 것!

Mini poll @ Edelman Korea

통계로 본 PR회사

별자리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많다?! ”



전문가로 성장하는 스스로를
직접 느낀다는 것!



Ihn

전문직이냐고요? Absolutely!!



Jenny

PR회사는 계속 지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즐거움이고, 좋은 PR회사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죠.



Eugene

전문직의 기준은 내가 안하면 남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PR은 처음 시작할 때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치의 중요성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나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또 PR은 전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남들이 모를 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다고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해줄 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생생 리얼 토크! PR 회사의 8 가지 진실

또 다른
진실

Q 일이 많다고 하는데, 야근은 얼마나 하나요?

→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한 야근이라면 필수!



Juny

어떤 고객을 담당하는지가 관건이죠. 하지만 보통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보다는 퇴근이 매우 늦은 편은 사실이에요.



Elizabeth

물론 일이 많아서 야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어쨌든 PR회사는 일반적으로 일의 양은 많은 편이에요.



Sein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이 담당한 고객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야근은 필수죠.



Jenny

저는 평균 저녁 8~10시에 퇴근해요. 상황에 따라서 평균보다 조금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 더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그렇죠.



Rach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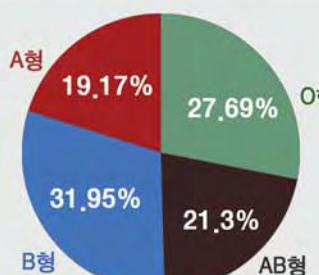
PR회사가 기업 홍보실에 비해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업 홍보실도 PR회사도 PR이라는 업무 자체가 일정한 퇴근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Best Result'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무척 달라지죠.

Mini poll @ Edelman Korea

통계로 본 PR회사

혈액형

“B > O > AB > A”



Q 술을 많이 마신다는데 사실인가요?

→ NO! 개인의 취향대로!



Juny

어디까지나 PR회사의 조직 문화나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우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죠.



Elizabeth

본인이 마시기 싫으면 안마셔도 됩!



Sein

그건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라고 봐요. 무엇보다 전문적인 PR회사는 술로 PR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Eugene

어느 업계를 홍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각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Jenny

술을 강권하지 않으므로, 많이 마신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Rachel

홍보 부서는 술을 많이 마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다른 업종의 친구들이 술 마시는 시간에…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함께 하는 걸… 농담이고요. 지금은 단순히 술을 마시면서 Relationship을 구축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회 트렌드를 이끌기 위한 분석력과 creative를 더 요구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PR 다이어리: PR 컨설턴트 24시간 밀착 취재 ①

변화무쌍한 도전으로 가득한 24시간! PR업무의 특성인 멀티태스킹, 신속성을 즐긴다!



Jill | Senior Account Supervisor | 차장

PR 컨설턴트 업무의 특성은 멀티태스킹, 신속성이다. 이메일 및 유무선 커뮤니케이션, 내외부 미팅, 보고, 컨설팅 제안서, 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내부교육,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업무 요청 대응 등등 매일 많은 양의 일을 신속함과 동시에 양질의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PR 컨설턴트 업무의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해한 후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PR전문가이다.



9:00 출근 & 이메일 체크. 이메일 체크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제 끝난 후부터 밤 사이 보도된 여러 가지 해외뉴스, 그리고 해외 오피스로부터 도착한 다양한 업무 관련 이메일들이 이미 수십여 개 쌓여있다.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PR 업무에 있어서 이메일 시스템은 매우 핵심적인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최근 RSS 및 다양한 뉴스알럿(News Alert) 시스템 등을 통해 더 시의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이메일을 되도록 출근 후 1시간之内에 모두 답변, 처리하면서 일차적 이메일 정리를 끝낸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의 미팅과 업무 메드라인, 교육 일정 등을 체크해 하루 동안의 업무 계획을 세운다.



9:30~10:00 모니터링 & 리포팅. 이메일 체크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클라이언트에서 문의한 여러 가지 사안 중 팀원들과 논의할 사항을 체크하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범사나 나온 뉴스부터 아침에 보도된 뉴스, 그리고 별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사안을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즉시 보고할 이슈가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 및 컨설팅을 이메일 및 전화 등을 통해 진행한다.



10:00~10:30 내부 미팅. 현재 나의 위치는 위로는 매니저/이사진에게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함께 일하는 팀원들을 관리해야하는 중간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협인들을 팀원들과 체크하고 상부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전 중 해당 클라이언트 리더급인 매니저/이사진에 보고드릴 사항을 이메일이나 서류상으로 간단하게 포인트를 정리해서 전달한 후 구두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 해드린다. 또한 이 미팅을 통해 오늘의 중요한 미팅이나 진행 중인 큰 사항들을 논의하고, 검토 및 결제가 필요한 문서도 함께 확인한다.



10:00~12:00 컨설팅 리포트 개발 및 리뷰. PR 회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매일매일 진행하고 벌어지는 업무 내용은 다르나, 동일한 점은 이제부터 업무 시작이라는 것. 순간순간 쏟아지는 이메일을 차리롭고 동시에 결제나 리뷰를 요하는 문서들을 검토하여, 이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리포트, 제안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한다. 그리고 조금 전 유선상으로 문의 받은 뉴비즈니스 컨설팅 사항을 응대하고 정리해 경영진에 보고 드린 후, 받은 피드백을 다시 문의한 회사 잠재 고객사에 전달한다. 필요할 경우 미팅 일정을 조정한다.



12:00~1:30 기자와의 점심 미팅. 클라이언트 산업군의 담당 기자와 고객사의 새로운 뉴스거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기자의 회사와 가까운 레스토랑에 점심 약속을 잡아놓았다. 5분전 도착해 미리 기다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함께 미팅에 참석하는 팀원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한다.



2:00~3:00 A사 팀 미팅. 대부분 한 사람이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프로젝트 갯수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5개까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각각 팀마다 내부 미팅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진행하게 된다. 오늘은 A 클라이언트 업무에 대해 팀 멤버들과 미팅이 있다. 효율적인 미팅을 위해 사전에 논의될 아젠다를 공유하는 것은 최우선 사항. 아젠다와 관련된 사항 및 서류를챙기고, 주요 포인트들을 체크한 후 미팅에 참석, 자세한 업무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방향과 각각 담당 업무를 나눈다.



3:00~4:00 내부 교육. 해외 오피스에서 온 전체 직원 공지메일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교육 세션인 '에델만 유니버시티 (Edelman University)' 수업 공지와 자료를 확인한다. 동시에 진행하던 보고서, 제안서, 컨설팅 페이퍼의 작성을 계속하고 오전에 검토하다 끝나지 않은 각종 리포트와 매체 자료, 보도자료 등을 검토한다. 각각의 팀원들에게 검토가 끝난 문서와 함께 잘된 점 및 앞으로 향상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내 주어진 업무를 잘하고 고객사 업무/컨설팅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가 적절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중간 관리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담당할 업무이다.



5:00~6:00 고객사와 컨퍼런스 콜. 고객사와 면대면 미팅 대신 오늘은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정된 시간에 미팅룸에 모여서 팀원들이 모두 전화를 통해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각 해당 사항을 짚어 나가며 논의를 진행한다. 컨퍼런스 폴이 끝나면 미팅에서 논의된 포인트와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미팅을 마친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뿐 아니라 각각 현재 매체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6:00~?:?? 새로운 제안서 작업. 벌써 공식적인 하루 업무 시간은 다 지나갔다. 하지만 업무량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뉴비즈니스 제안서 작업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고민하고 정리한다. 벌써 저녁시간이다. 배를 채우고 다시 오피스로 복귀.

하루 일과 마감시간.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에 마감한다. 마감하기 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를 하는 시간. PR 컨설턴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관리. 시간 관리를 위해 각 담당 프로젝트/클라이언트별로 자세한 업무 범위가 기록된 '서비스 시간 트래킹 시스템'인 Time Sheet에 로그인 하고 클라이언트별, 다양한 업무별로 수십 개에 달하는 업무 리스트에 하루 동안 사용한 시간에 대해 15분 단위로 쪼개어 시간을 기록한다. 그리고는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고 면면 짚으로 향한다…

PR 다이어리: PR 컨설턴트 24시간 밀착 취재 ②

모니터링+리포팅+내외부 미팅+카운셀링+컨설팅! 언제나 동시다발 현재진행형!



09:00~09:20 미디어 모니터링. 하루의 첫 시작은 항상 미디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시간 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밤 사이 들어온 해외뉴스를 체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아침에 보도된 고객사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을 점검하고, 주요 국내 신문 및 해외 경제지를 검토한다.



9:20~10:50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과 전달. 클라이언트 A사를 위한 뉴스 모니터링 영문 리포트를 1차로 작성하고 상사에게 리뷰를 부탁한 후, 클라이언트 B사의 모니터링 리포트를 작성 및 전송한 후, 바로 C사를 위한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에 들어간다. 만약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뉴스가 게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한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한다. 모니터링은 관련 뉴스를 검토하고 대응하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고객사의 비즈니스 동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업무다.



10:50~11:30 카운셀링 리포트 작성. 모든 모니터링 작업이 완료된 후, 전날 클라이언트 B사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되, 앞으로 진행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카운셀링 메모를 덧붙여 리포트를 개발한다.



11:30~1:00 기자와의 접심 미팅. 오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D일보 기자와의 접심 미팅이 있는 날이다. 이날 미팅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해당 기자와 유선상으로 약속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고, 미팅 자료를 준비한다. 팀 멤버들과 함께 기자와 접심식사를 함께하며 주로 담당한 고객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전하고, 요즘 기자들이 자주 듣는 업계 핫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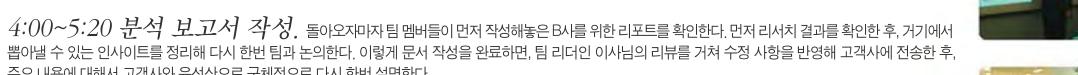
1:00~2:30 컨설팅 리포트 정리. 기자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오후에 진행될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해 자료 및 발표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오늘은 이제까지 진행했던 E사의 위기관리 및 명성관리 컨설팅 결과물을 발표하는 날이다. 그동안 진행했던 서비스, 심층인터뷰 등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한 자료와 함께, 이를 토대로 수립한 PR 전략 기획안을 경영진 앞에서 보고해야 한다.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한 자료를 반복해서 확인한 후 고객사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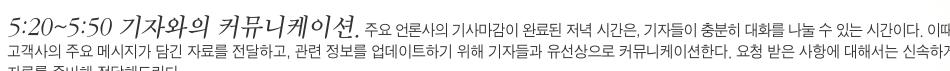
24시간 밀착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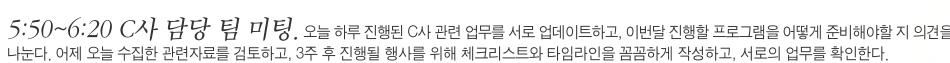
2:30~4:00 클라이언트 미팅. 6개월 이상 진행한 컨설팅의 과정과 결과물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다. 사장님과 이사님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사 경영진의 피드백을 살피고 질의사항을 기록한다. 6개월 동안 정신없었던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고객사의 만족스런 피드백을 받는 순간 모든 고생이 의미있게 다가온다. 돌아오는 길, 팀 멤버들과 프로젝트 중요성을 기념한 풍파티 날짜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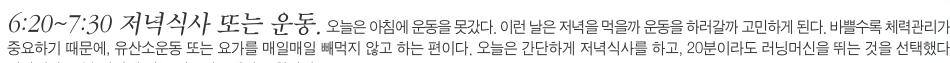
4:00~5:20 분석 보고서 작성. 돌아오자마자 팀 멤버들이 먼저 작성해놓은 B사를 위한 리포트를 확인한다. 먼저 리서치 결과를 확인한 후, 거기에서 빠져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정리해 다시 한번 팀과 논의한다. 이렇게 문서 작성은 원료면, 팀 리더인 이사님의 리뷰를 거쳐 수정 사항을 반영해 고객사에 전송한 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고객사와 유선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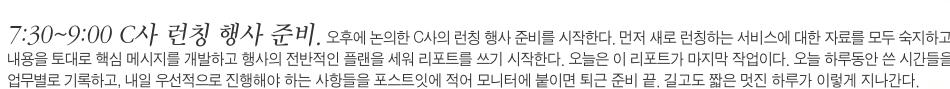
5:20~5:50 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주요 언론사의 기자마감이 완료된 저녁 시간은, 기자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이때 고객사의 주요 메시지가 담긴 자료를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기자들과 유선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 전달해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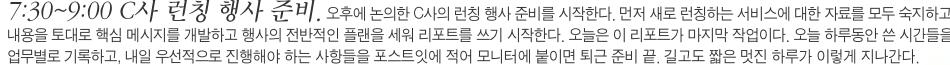
5:50~6:20 C사 담당 팀 미팅. 오늘 하루 진행된 C사 관련 업무를 서로 업데이트하고, 이번달 진행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의견을 나눈다. 어제 오늘 수집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3주 후 진행될 행사를 위해 체크리스트와 타임라인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서로의 업무를 확인한다.



6:20~7:30 저녁식사 또는 운동. 오늘은 아침에 운동을 못갔다. 이런 날은 저녁을 먹을까 운동을 하러갈까 고민하게 된다. 바쁠수록 체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운동 또는 요ガ를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편이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20분이라도 러닝머신을 뛰는 것을 선택했다.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로 향한다.



7:30~9:00 C사 런칭 행사 준비. 오후에 논의한 C사의 런칭 행사 준비를 시작한다. 먼저 새로 런칭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숙지하고, 내용을 토대로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고 행사의 전반적인 플랜을 세워 리포트를 쓰기 시작한다. 오늘은 이 리포트가 마지막 작업이다. 오늘 하루동안 쓴 시간들을 업무별로 기록하고, 내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에 붙이면 퇴근 준비 끝. 길고도 짧은 멋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Work & Life: “PR 프로페셔널로 산다는 것”

| PR회사에서 일하는 프로페셔널들의 삶은 어떨까? 어떤 점이 보람있고, 어떤 점이 힘든지, 또 PR 커리어를 개발하는 노하우와 자기관리의 비법은 무엇인지…
| PR회사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해나가고 있는 3명의 프로페셔널들에게, PR인으로 살아가는 이모저모에 대한 깊이있는 이야기와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결과물에 클라이언트가 기뻐할 때 느끼는 성취감이 일의 원동력이죠.”



Ellen
Account Supervisor
과장

PR회사에서 일해서 좋은 점은?

다양성: PR회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홍보실에서 근무한다면 한 가지 기업이나 분야만을 담당했겠지만, PR회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다양한 프랙티스(practice)에 걸쳐 진행하면서 풍부하고 체계적인 PR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양한 경험들이 촉적되고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전문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오너십(Ownership): PR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담당한 브랜드를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런칭 행사, 업계 관계자 미팅 등 다양한 활동들을 내 손과 내 아이디어로 직접 이끌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경험하면서 PR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PR회사에서 일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보다, 많은 기본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점과, 좋은 리절트를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 공존합니다. 그리고 PR업의 특성상 여러 이슈들이 발생할 때 예기치 않게 요청되는 업무를 전체 일정 속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하나의 힘든 점이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경력이 쌓일수록 매니지먼트 능력과 노하우가 생겨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 같아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일에서 오는 성취감과 보람은, 담당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좋은 리절트가 나왔을 때, 그리고 리절트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만족감을 표현할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담당했던 전동칫솔 신제품이 런칭됐을 때, 다양한 앵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 멋진 기획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이끌어 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첫솔의 런칭은 정말 뉴스가 되지 못한다고들 했지만, 다양한 앵글의 개발과 오랜 준비로 좋은 리절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이러한 제 노력과 열정을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저희 회사 전세계 오피스 전직원 중 우수 사원의 한 명으로 선정됐을 때와 아래지역 PR 트레이닝의 서울 오피스 교육자로 선발됐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 받고 이를 통해 느끼는 자부심은 회사를 더욱 열심히 다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계발이나 자기 관리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의 자기 계발법은, PR업계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각기 다른 분야 및 활동에서 나온 실제적인 인사이트와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얻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체력관리인데, 잘 먹는 것과 더불어 꾸준히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체력관리를 하고 있어요.

PR회사를 희망하는 후배나 미래의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선, PR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열정은 구체성을 바탕으로 한 열정이어야 하는데, PR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일하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자기 적성과 맞는지를 한번 더 생각하고 지원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Work & Life: “PR 프로페셔널로 산다는 것”

“ PR 회사,
PR 업무의 중압감과 긴장감을 즐길 자세와 능력을 가진
‘제대로 준비된 프로’를 위한 곳! ”



Seikyu
Senior Account Executive
대리

PR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PR 분야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PR 커리어를 위한 자기 계발 노력, 성품까지 동료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매일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PR회사에서 일하고 난 뒤 깨달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소 어려운 점은,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정보 전달 속도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었고, 그만큼 홍보 담당자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일들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압감 혹은 긴장감에 준비되고, 또 즐길 줄 아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는 ‘괜찮은’ 홍보 담당자일 것입니다.

PR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이 컸던 일이 있다면?

가장 큰 성취감과 보람은 담당 클라이언트 및 관련 매체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느껴집니다. 저는 비디오 게임기 제품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최근 경쟁사 제품을 제치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또 지난 5월 미국 LA에서 진행됐던 세계 최대 게임 엑스포 ‘E3’에서 진행한 PR 활동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가장 뜻깊게 다가옵니다. 태극기를 들고 LA 헬리우드 앞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났을 때, 부러운 듯 바라보는 외국 미디어 및 홍보 담당자들의 시선이 기억납니다.

PR회사는 정말 사람 만나는 일이 많은지?

1주일 평균 외부 미팅은 2~3번 정도이며, 내부 미팅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회를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보다 넓게 형성하고, 더욱 효과적이고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홍보 담당자 본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조심하고 또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계발의 노하우가 있다면?

벤치 마킹 (Benchmarking)!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의 고수를 찾고,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만한 자기 계발의 노하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독서’도 남의 경험과 지식을 체득화할 수 있는 좋은 벤치 마킹 방법이겠지요.

만약 하루에 2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블로그 관리 및 업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웹 2.0 시대에 ‘블로그’는 필수 요소! 21세기 재창조된 ‘아고라’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희망하신다면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저의 블로그는 <http://yhong49.egloos.com>입니다.

PR회사를 희망하는 후배 및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요즘 PR회사를 희망하는 후배님들과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때 느낀 것은 ‘제대로 준비된 자’ 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홍보 회사는 신규 채용인력에게 최소한의 적응 기간과 즉각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옹병’ 과도 같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PR회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함께 요구되고요.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어려운 만큼 그것을 성취한다면 더 큰 보람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재’ 애필로, PR회사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해보십시오.



Work & Life: “PR 프로페셔널로 산다는 것”

“PR 회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곳”



PR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은?

우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소비재 등 특화된 PR 분야를 가진 회사일수록 깊이있는 노하우와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반면, 한 가지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각각의 데드라인에 맞춰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감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고, 여러 프로그램을 섯팅하며 진행하는 기쁨과 보람은 다른 어느 것보다 크다고 자신합니다!

PR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PR을 시작하고 만 2년의 PR 경력을 넘기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보람있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자료를 기획하고 편집한 다음, 그 기획된 앵글의 결과물을 신문 지면 또는 방송으로 확인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또 PR 컨설턴트로서 상황을 진단하고 고객사가 나이갈 방향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여,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도 큩니다.

PR회사과 잘 맞는 본인의 성격은?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PR회사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PR인의 역할이라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제 성격이 PR회사 생활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 계발의 노하우가 있다면?

자기 계발의 기본은 끊임없는 노력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PR회사의 장점은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점인데,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그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 보면 세상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기를 수 있지요.

PR회사를 희망하는 후배 및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PR 회사는 본인의 잠재력과 사회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주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관계 속에서 보람을 찾고 싶으신 분들 모두모두 PR의 세계로 모십니다!



PR Wanna Be 를 위한 어드바이스



Margaret Key
Deputy Managing Director
부사장

Passion for PR, Passion for People

- What qualities are needed for working at a PR firm?

Entry level: passion, ambition, organization and creativity... a desire to always be challenged and see all things as opportunities

Advancing your career: being vigilant about learning about the changes in communications in markets all over the world, passion for PR, passion for people and a passion for wanting to guide, teach and develop juniors

- Employees who you think showcases the most value?

People who came to Edelman and who were genuinely interested in PR and appreciate that Edelman is a place where they can grow and learn. I love employees who have been able to grow at Edelman and who are now teaching their juniors in the same way in which they were taught and fostered.

- What is your most significant or memorable experiences in your PR career at a PR firm?

I think working in healthcare I was able to enter a relatively new practice area with little experience and come out now knowing so much about the benefits of what my clients do and how their products are contributing to healthier lives for the public.

My first win was with a client that wanted help on a disease campaign and winning this business was really critical. I stayed in the office until 4am, pitched at 11am and our idea was not only incredibly creative, it was also very strategic. We ended up winning this specific business and it has been now 4 years that we have maintained this important partnership.

마가렛 키 / 에델만 코리아 부사장

PR Wanna Be 를 위한 어드바이스



“PR과 깃발 이야기”

제가 PR ‘업’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PR 업에 대한 깃발’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R 업(業)을 좋아하고 그 업(業)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원동력 또한 PR ‘업’의 깃발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극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전투에서 패한 병사들이 부대 깃발을 버리지 않고 힘들게 도망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깃발은 하나의 비전이며 희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길이라도 여기서 깃발을 버리는 순간, 병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제각각 흩어져 죽게 됩니다. 부대의 깃발이 상징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즉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PR이라는 ‘업(業)’에 있어서 ‘깃발’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보다 ‘전문가(Professional)’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경력만 오래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경험뿐 아니라 그 분야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축적된 경험과 부단한 자기계발과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고 이끌어내는 것은 업에 대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열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통해서 그 열정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PR 업(業)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겪더 웠던 것은 제게 하나의 깃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각 주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 영역으로서 PR 만의 고유 언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각 영역에 커뮤니케이션 지혜를 제공해주고, 다른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잠재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트레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PR 전문가로서의 비전은 현재에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진행형입니다.

PR 전문가로서 비전은 개개인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확신하는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셀프 스타터(Self-Starter)’로서 독립적인 기업가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그 지식을 실현하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산공장이자 전달 매체이자 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근로자는 생산수단을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지식은 고도화 되었을 때 비로소 이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PR 업만큼 지식근로자의 속성을 잘 담고 있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PR 컨설턴트는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동기부여 시키면서 경험과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양한 PR 경험을 통해 숙달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을 바탕으로 얻어진 지식과 지혜는 삶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영역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PR ‘업’ 만의 매력입니다.

현재 PR은 단순한 언론관계로부터 벗어나 포괄적인 경영 자문과 경제, 사회, 정치, 기술 전반에 연관된 활동 지향적인 기능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PR을 ‘전문적 직업’으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PR를 시작하려는, 또는 PR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PR ‘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 PR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아직 개인적 비전을 설정하지 못한 분들은 PR 프로페셔널로서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개성, 그리고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면서 형성되는 잠재적 능력 등을 고려해 PR 비전을 설정하는 그 시점부터 PR 프로페셔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함수 / 에델만 코리아 이사

PR Wanna Be 를 위한 어드바이스



Steve Bowen
Director
이사

Time Thinking!!

- Which qualities are needed for working at a PR firm?

Entry level:

You should have, at minimum, good written and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around you and general idea of how businesses function.

You need to be organized and able to handle multiple projects at the same time and be able to perform well under pressure.

You should also be able to act on your own initiative and be proactive about offering suggestions.

I look for people with a wide range of interests and activities outside school / university, particularly sporting interests, travel, volunteer work and leadership roles.

Career Advancement:

You need to be able to make the transition from detail and tactical orientation to big picture strategy.

You need to counsel clients and team members and subordinates in a manner that is both creative and rooted in an understanding of their business.

You should be able to plan, read and understand a research document.

- Employees who you think showcases the most value?

The employees that I think add the most value are the ones that are able to proactively offer good counsel to clients – the kind of consultant that the client values. I believe that at every level a good consultant should have the ability to develop an insight and pass it either to the client owner / leader or directly to the client. Bob, president, North Asia says that *our product is time, but I think it's more accurate to say that it is time thinking*. Anyone who is doing that on a regular basis is going to be an employee to be proud of.

- What is your most significant or memorable experiences in your PR career?

Launching the Sorento at Kia. I was involved at every step from the brand ideation, positioning, advertising and communications for the car, which got masses of global media coverage, won awards in every major market and was the top selling vehicle globally for Kia. *We were the only car company in the world whose number one vehicle in terms of sales was also the highest margin vehicle we produced.*

스티브 보웬 / 에델만 코리아 이사

PR Wanna Be 를 위한 어드바이스



Hoh Kim
Managing Director
사장

인턴에서 사장까지: 미래의 PR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이야기

1996년 여름,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중 에델만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한 것은 참 우연이었습니다. 사실 전 처음 에델만이라는 회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름방학, 다른 PR 회사에서 인턴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인턴을 시작하기 바로 한 달 전 갑작스런 합병으로 제 인턴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저를 인터뷰했던 분이 미안하다고 소개해 준 곳이 바로 에델만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추억을 안고 여름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박사과정 첫 학기를 마쳤을 때쯤,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환율변화로 수입료로 지불해야 하는 돈은 갑자기 두 배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실무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터에, 공부를 더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2주 간의 고민 끝에 담당 교수에게 1년간 유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짐 싸서 나왔습니다. 그때 2주 만에 4킬로그램이 빠졌고, 유학을 한 후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는 안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인턴 때의 인연으로 저를 받아준 곳이 에델만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당시 IT 붐을 타고, 한 벤처회사와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무경력 1년도 안 되는 저를 벤처회사 사장은 치켜세웠고, 또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솔깃했지만, 막연하게나마 ‘지금은 옮길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접었습니다. 1년이 넘어서는 한 대기업과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을 생각하면 오백 만원이라는 거금을 더 주겠다는 조건이었지만, 그냥 더 놀랐습니다.

에델만에서의 생활이 3년 반 정도 되어갈 때, 별로 오라는 곳도 없는데, 정말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작정 회사에 사표를 내고, 2개월 동안 마무리를 하면서 이곳 저곳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사장님께 “그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다음 갈 곳을 찾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뻔뻔함(?)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커뮤니케이션팀장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지 겨우 14개월 되었을 때쯤, 에델만에 신임 사장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델만에 근무하던 동료들과 함께 만나는 간단한 파티를 열었었는데, 여기에서 만난 신임 사장은 저에게 에델만에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에델만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는 매력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까지 만 8년 가까이 에델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의 인턴에서 사장까지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에서부터 ‘어떤 회사로 들어가야 할까?’,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옮겨야 할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자기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이런 때마다 어디 가서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을까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생 혹은 후배들로부터 ‘PR회사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혹은 ‘그 이후의 커리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사람마다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패턴이 다양하며, 무엇보다 한 사람의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나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중 첫 시작으로 제일 좋은 것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과의 대화로부터 스스로 답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PR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카리어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미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에델만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모아서 공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하느라 바쁜 에델만 직원들을 닦달하여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에델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지만, 에델만 직원 개개인은 매우 다양한 경험과 동기를 가지고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PR 분야의 커리어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멋진 미래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래서 더 발전된 PR 업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내어준 직원들, 그리고 안 그래도 바쁜데 시간 내어 예쁜 책자로 만들어 준, 이지원 차장, 하주현, 송혜승, 이정환 사원에게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김호 / 에델만 코리아 사장

Editor's Note

022



Senior Account Supervisor
Jill

PR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커리어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책자인 〈PR Wanna Be〉를 처음에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제가 PR회사에 지원하고 입사하던 초년병 시절 생각을 했습니다. PR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사실 PR의 실무가 어떻게 PR회사에는 어떻게 입사해야 하는지 정보가 전무했었지요. 교수님이나 학교의 소개를 받는 정도가 다였는데 6년이 지난 지금, PR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PR 프로페셔널로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PR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PRO이 전문분야로서 사람들에게 더 알려진 까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PR을 시작하거나 PR회사에 취업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PR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또한 주위에서 후배들이 많이 궁금해 했던 점과 PR회사의 일상과 다이나믹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PR회사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이 보람되고 힘든지, 또 PR 프로페셔널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말이죠. 또한 다른 분야에서 PR회사에서 커리어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께도 이 〈PR Wanna Be〉에 담긴 내용이 PR이라는 산을 이해하는데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PR회사의 PR Professional이 되기 위한 〈PR Wanna Be〉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힘써주신 팀원들 및 원고작성에 도움주신 Edelmanites들께 감사 드립니다.

Account Executive
Joohyun

〈PR Wanna Be〉 제작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또 하나의 멋진 길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잔잔하게 몰려옵니다. 풀숲으로 기득 하던 들판도, 한 사람 두 사람 걸어나가고 또 자주 다니다 보면 오솔길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다면 그 오솔길이 넓어져서 큰 길이 됩니다.

PR회사에서 일하는 길, PR 프로페셔널로서 성장하는 길도 그렇습니다. 현재 PR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즐겁고 힘들게 걸어왔던 길과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걷고 산을 넘어야 할 것인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제 그 다양한 길들이 한 자리에 모여 〈PR Wanna Be〉라는 큰 길, 혹은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어 기쁩니다.

이제 PR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을 조금 넘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북클릿의 기획과 편집 작업을 통해 무척 얻는 바가 많았습니다. PR회사의 생생한 숨소리를 들려주신 여러분들과 북클릿 작업으로 오랜 기간 애쓰신 우리 팀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PR에 대한 열정과 애정, 진심이 담긴 이 따뜻한 지도를 통해 걷고 싶은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가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ohyun

Assistant Account Executive
Stephanie



Stephanie

이번 북클릿을 제작하면서, 대학교 시절, 대학 신문 및 다수 잡지들에 실린 멋진 PR인들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가슴 설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만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그들이 털어놓은 노하우, 그들의 목표에 관한 글귀 하나하나에 몰입했던 저 자신을 맡입니다. 현재 하루 10시간 넘게 쉼 쉬고 있는 이 공간에, 제 심장을 뛰게 했던 바로 그 프로페셔널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가지기까지 나름대로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진정한 PR professional이 되고픈 이들에게 PR회사의 일상을 꿈꾸며 그 문턱에 가기까지, 여기에 담긴 PR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그 열정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듯이, 막연하게 PR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기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그리며 PR인들의 노하우들을 자신의 노트 첫 장에 적는 것이 꿈을 향한 시작이지 않을까요?

언예인 김제동이 수상소감으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처음 출발 할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다”

〈PR Wanna Be〉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잡은 글귀 한 구절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p.s. 〈PR Wanna Be〉 제작 마무리하기까지 팀원들의 격려 및 협조해주신 에델만 식구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Interactive Solution
Jace

PR Professional들의 이야기, PR Wanna Be.

저는 〈PR Wanna Be〉의 디자인과 디지털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PR 프로페셔널들의 주목 같은 글귀들을 돋보이도록 디자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과 함께한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 그리고 출판을 코 앞에 둔 지금의 뿌듯함까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마치 오래 전에 본 영화 속 장면들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PR Wanna Be〉가 출판되기까지 함께 수고하신 Jill 차장님, Joohyun 선배, Stephanie 그리고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신 PR Professional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어라”

〈PR Wanna Be〉가 그 새 한 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PR Professional이 되고자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께 〈PR Wanna Be〉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Jace



PR Wanna Be

PR Wanna Be?

회사 내에서 PR분야 및 PR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책의 이름을 짓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의미를 함축한 제목을 뽑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PR인이 되고 싶은 사람, PR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PR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통칭할 수 있는 'PR Wanna Be'라는 타이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공모를 통해 받은 상품권보다 제가 출장 중에 혼자 호텔방에서 골똘히 생각한 타이틀이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이 책자의 제목으로 블린다는 사실이 더 기쁩니다.

Jill | Senior Account Supervisor | 차장

- 지은이: PR Professional
- 발행인: Edelman Korea
- 초판 1쇄 발행: 2007년 2월 12일
- 값: 이 책으로 인해 PR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다면 무료입니다.



에델만은 본 책자의 내용을 보다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CC(Creative Commons)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명표시권을 행사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변경을 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배포 및 활용하시거나, 이용허락조건을 보시려면,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를 방문하시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 문의해주시오.

본 자료는 에델만코리아 웹사이트(www.edelman.c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delman Korea

독립 PR 커뮤니케이션 컨설팅社로는 전세계 최대 규모인 에델만(www.edelman.co.kr)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PR의 전분야에 걸쳐 제공하고 있으며, 1952년 설립된 후 현재 전세계 46개 사무소에서 2,400명의 프로페셔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델만 코리아는 2005년과 2004년 전세계 에델만 오피스 중 2년 연속으로 '최고의 오피스 (OFFICE OF THE YEAR)'로 선정됐으며, 또한 유력한 PR전문지 PR Week로부터 2004년 아태지역 최고의 PR컨설팅社'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아태지역 14개 에델만 오피스 중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에델만 코리아는 책임임없이 PR 스탠다드를 세워나가며, 한국의 기업을 전세계에, 전세계의 기업을 한국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돋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소공동 21번지 삼화빌딩 7층 100-070
전화 02-725-2001 팩스 02-725-2007
전자우편 info.korea@edelman.com